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신완주*, 박혜영**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B시에 소재한 5개의 4년제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 활용 현황, 음악 활용 목적, 개인 변인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150부를 배포한 후 회수된 81부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한 총 69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노래부르기나 악기연주에 비해 음악감상 활동을 선호하였으며 주로 혼자 기숙사에서 대중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을 선호하였으며 한국의 음악 보다는 본국의 음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 둘째, 음악 활용 목적은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소속감, 성취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 변인(성별, 한국거주기간, 음악교육경험 유무)별 음악 활용에는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선호 음악분위기와 음악을 통해 소속감을 얻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현황 파악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응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유학생, 음악 활용 현황, 음악 활용 목적, 개인변인, 조사연구

*주저자: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음악치료사

**교신저자: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legendphy@kosin.ac.kr)

I. 서론

최근 국내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거나 정규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만 명으로 추정되며(Ministry of Justice, 2017), 증가율 또한 13년간 32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Cho & Lee, 2010). 이들의 출신국가도 아시아에서 비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있어(Moon, 2014),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Lee, 2014).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대변되는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 및 각 부처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한 결과이기도 하다(Baik, 2011).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적극 유입되면서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국가 경쟁력의 고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o, Song, & Shin, 2003).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Baik, 2011).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문화가 아닌 낯설고 생소한 환경에서 그 사회의 기존 학생들과 학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문화 간의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Wang, 1999). 특히 어학연수가 목적인 유학생에 비해 대학 교육이 목적인 유학생은 비교적 오랜 기간 국내에 머물지만, 문화적으로 수용되거나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동화되지 못하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 대학생활에 소극적이다(Seo & Keum, 2012).

실제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은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학생들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ik, 2011). 대학 교육이 목적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강의내용의 이해 부족, 연구수행과 발표능력 부족 등 학업성취의 저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과 고독, 불안 등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여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Cho & Lee, 2010; Lim & Han, 2009). 학업적응뿐만 아니라 경제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개인으로서의 역할 갈등, 일상생활 수행의 제한(Lee, 2014),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의 적응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Na, 2006).

이들은 타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부적응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Yook, Kim, & Seo, 2009). 또한 문화, 언어, 생활방식, 음식이 다른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 유학생생활 중 받는 학업적, 개인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이것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처럼 유학생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것들을 잃는 상실감을 경험하는데, 이는 개인의 적응능력에 많은 부담을 주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Na, 2006). 자신에게 익숙했던 환경과 다른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은 불안을 초래하는데,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이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그러한 느낌은 유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Yu, 2013). 이에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

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적응 및 대인관계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ee, 2012).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개인의 심리적·성격적 요인과 개인배경 요인이 있다(Choi, 1999). 우선 심리적·성격적 요인은 유학생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대학생활에서 능동적이고 적응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Jeoung, & Yu, 2007). 또한 개인배경 요인인 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기간, 주거, 교육과정, 한국어 능력 등도 이들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aik, 2011). 실제로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을 살펴본 Seo와 Keum(201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적응에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J. H. Lee, 2008; Sun, 2009). 또한, 거주기간에 따른 대학적응에 대한 연구들도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를 살펴본 J. M. Lee(2008)의 연구와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조사한 Seo와 Keum(2012)의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한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본 Han(2008)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분석한 Zhang(2005)의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개인배경 요인에 따른 대학적응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연구대상 특성(국적이나 교육과정 등)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Baik, 2011), 향후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개인변인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음악은 언어적 접근이 어려운 유학생들에게 내면의 욕구와 갈등을 표현하게 할 수 있고, 음악 자체가 주는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변화를 도모하고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Lee, 2016). 더 나아가 음악은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므로(Shin & Cho, 2012), 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문헌 연구들을 통해 음악치료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문화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는 이들의 적대감, 차별감, 소속감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Chung,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음악치료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Park, 2010). 또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감소를 위한 노래중심 음악치료(Oh, Kim, Jeong, Jun, & Nam, 2016)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래심리치료(Yoon, 2016)가 활용하기도 했다.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

을 주었고(Lee, 2016), 재한 몽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음악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Yoo, 2016). 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음악 활용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음악을 매개로 국내 유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에 있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학생들의 음악 활용에 대한 조사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ark & Moon, 2011; Rentfrow & Gosling, 2003). 특히, 음악은 개인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므로(Hudson, 2006), 유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활용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통과 공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인식과 선호도 파악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응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현황 및 활용 목적은 어떠한가?
2.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 변인에 따라 음악 활용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B시에 소재한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5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학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협조를 얻어 표집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50부가 이메일과 기관방문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81부를 회수하였고 검토과정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2부를 제외하고 6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69)

Variable	n (%) or M ± SD
Age	23.35 ± 5.19
Gender	
Male	32(46.4)
Female	37(53.6)
Nationality by region	
Asia	29(42.1)
America	13(18.8)
Europe	10(14.5)
Africa	17(24.6)
Length of stay in Korea	
Less than 1 year	24(34.8)
1-3 years	32(46.4)
More than 3 years	13(18.8)
Length of previous music education ^a	
None	44(63.8)
Less than 1 year	16(23.0)
1-3 years	6 (8.8)
More than 3 years	3 (4.4)

^a Experience of extracurricular music education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을 분석하기 위해 음악 활용 현황에 대한 15문항, 음악 활용 목적에 대한 5문항, 기본정보에 대한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음악 활용에 대한 문항은 Yoo(2013)가 수행한 일반 대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 정서변화 및 음악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와 Hwang, Kim과 Ahn(2008)이 중국 대학생들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질문지를 참조하였다. 또한, 음악 활용에 대해 Yang과 Park(2016)이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7개 변인(활동, 빈도, 장소, 사람, 장르, 분위기 등)을 본 설문에서도 사용하였다. 둘째, 음악 활용 목적에 대한 문항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North, Hargreaves와 Hargreaves(2004)의 연구를 근거로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성취감과 소속감 항목에서는 Park(2010)과 Chung (2009)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이 문화적응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도구로 활용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셋째, 일반사항에서는 성별, 출생국가, 한국거주기간, 음악교육정도를 살펴보았다. 성별과 출생국가 및 한국거주기간은 Seo와 Keum(2012)의 연구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학적 정보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요 변인으로 활용된 것을

차용하였다. 특히 한국거주기간은 심리적 적응 양상에 대한 Lysgaard(1955)의 연구를 토대로 6개월 미만(적응상태 좋음),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적응상태 약화), 18개월 이상(적응상태 양호)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음악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Kreutz, Russ, Bongard, & Lanfermann, 2003; Misenhelter & Price, 2001)에서 언급되는 요소인 음악교육경험 정도를 추가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에 대한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는 음악치료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음악치료 전문가 2인으로부터 설문지 내용이 연구 목적을 잘 반영하는지, 질문의 내용이 정확한지, 대상자에게 적합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지, 설문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증받았다. 설문지는 한국어판, 영어판, 중국어판의 세 가지 언어로 제공되었다. 영어판과 중국어판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번역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미국인 교환교수와 중국어전공 교수에게 각각 검증을 받은 후 배포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여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관련된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1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 신뢰도 검증 결과 또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 설문지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Table 2> 참조).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Category	Subcategory	Number of items	Cronbach's alpha
Use of music	Current use of music (type of activity, frequency, place of music activity attempted, preferred genre, preferred style of music, etc.)	15	.796
	Reasons to use music	5	.809
Demographic information	Gender, age, nationality by region, length of stay in Korea, and length of previous music education experience	5	-
Total		25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음악 활용의 현황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음악 활용 목적은 항목별 평정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현황은 카이제곱검정과 피셔의 정확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시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이 되면 카이제곱검정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셔의 정확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은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현황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음악 활동 중 음악감상(63.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참여횟수는 주 2-3회(43.5%)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음악장르는 대중음악(40.6%)을 많이 접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중음악(15.9%)보다는 모국의 음악(33.3%)을 즐겨듣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음악 분위기는 빠르고 경쾌한 음악(39.1%), 고요하고 차분한 음악(31.8%),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20.3%)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 가사의 주제는 사랑(43.5%)과 용기와 희망(39.1%)의 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참조).

<Table 3> Current Use of Music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N=69)

Category	Question response	n	%
Activity	Listening	44	63.8
	Singing	19	27.5
	Playing	5	7.3
	Composing	1	1.4
Frequency	Less than once a week	10	14.5
	2-3 times/week	30	43.5
	4-5 times/week	13	18.8
	More than 6 times/week	16	23.2
Place of music activity	Dormitory	29	42.1
	Schools	15	21.7
	Place for religious rituals	19	27.5
	Concert halls	6	8.7
Person who music is used with	By oneself	38	55.1
	With friends	19	27.5
	With loved ones	12	17.4
Genre	Classical	8	11.5
	Popular music from one's own country	23	33.3
	Korean popular music	11	15.9
	Western popular music	19	27.5
	Religious music	18	26.1
Mood of music	Fast and lively	27	39.1
	Heavy and solemn	6	9.7
	Calm and stable	22	31.8
	Slow and lyrical	14	20.3
Theme of lyrics	Love	30	43.5
	Courage and hope	27	39.1
	Memory and nostalgia	9	13.1
	Social issues	3	4.3

2.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목적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음악을 활용하는 목적과 관련한 항목은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목적은 편안함이 가장 높았고, 기분전환, 즐거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감과 성취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음악 활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Table 4> 참조).

<Table 4> Purpose of Music Use i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N=69$)

Purpose	Number of respondents, n (%)					$M \pm SD$
	1	2	3	4	5	
Joy	0 (0.0)	2 (3.1)	11 (17.2)	26 (42.2)	22 (37.5)	4.14 \pm 0.81
Comfort	0 (0.0)	0 (0.0)	4 (6.3)	32 (51.6)	25 (42.2)	4.35 \pm 0.60
Mood change	1 (1.6)	1 (1.6)	6 (9.4)	32 (51.6)	21 (35.9)	4.18 \pm 0.79
Achievement	3 (4.7)	13 (21.9)	15 (24.9)	24 (39.1)	6 (9.4)	3.23 \pm 1.13
Belonging	0 (0.0)	7 (12.5)	19 (31.3)	25 (40.6)	10 (15.6)	3.59 \pm 0.90

Notes. 1: high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3. 개인 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변인(성별, 한국거주기간,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음악 활용 현황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혼자 기숙사에서 사랑과 관련한 가사의 대중음악을 주 2-3회 감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거주기간 변인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과 2년 이상인 집단, 즉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Lim과 Han(2009)의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 요인분석 연구에서,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학생과 1-2년 간 거주한 학생들은 모두 심리적 부적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은 부적응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별 집단 차이를 선행연구의 심리적 부적응 결과치를 고려하여 2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거주기간에 따른 음악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 항목 중 선호 음악 분위기의 응답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은 고요하고 차분한 음악에 대한 활용이 높은 반면, 한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집단은 빠르고 경쾌한 음악에 대한 활용이 현저하게 높은 비율($\chi^2 = 8.450, p < .05$)을 차지하였다(<Table 5> 참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변인(성별, 한국거주기간,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리커트 3점 척도를 사용하여 긍정(그렇다, 3점), 중립(보통이다, 2점), 부정(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월콕슨 순위합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성별과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음악 활용 목적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소속감, 성취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거주기간 변인에서는 소속감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이 2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Z = -2.805, p < .05$)를 나타냈다(<Table 6> 참조).

<Table 5> Music Use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	Gender		χ^2	Length of stay		χ^2	Music education experience		χ^2	
	Male (n = 32)	Female (n = 37)		< 2 yrs (n = 42)	> 2 yrs (n = 27)		Yes (n = 25)	No (n = 44)		
Activity	Listening	23(71.8)	21(56.7)	4.643	25(59.6)	19(70.3)	3.980	17(68.0)	27(61.4)	0.643
	Singing	5(15.6)	14(37.9)		13(30.9)	6(22.2)		6(24.0)	13(29.5)	
	Playing	3(9.5)	2(5.4)		3(7.1)	2(7.5)		2(8.0)	3(6.8)	
	Composing	1(3.1)	0(0.0)		1(2.4)	0(0.0)		0(0.0)	1(2.3)	
Frequency	Less than once/wk	7(21.9)	3(8.1)	3.832	4(9.5)	6(22.2)	3.451	5(20.0)	5(11.4)	1.881
	2-3 times/wk	14(43.7)	16(43.2)		20(47.6)	10(37.0)		12(48.0)	18(40.9)	
	2-3 times/wk	7(21.9)	6(16.2)		8(19.0)	5(18.6)		4(16.0)	9(20.4)	
	More than 6 times/wk	4(12.5)	12(32.5)		10(23.9)	6(22.2)		4(16.0)	12(27.3)	
Place	Dormitory	12(37.3)	17(45.9)	1.990	16(38.1)	13(47.8)	4.826	7(28.0)	22(50.0)	5.477
	Schools	7(21.9)	8(21.6)		11(26.2)	4(15.0)		8(32.0)	7(15.9)	
	Place for religious rituals	11(34.5)	8(21.6)		15(35.7)	4(15.0)		7(28.0)	12(27.3)	
	Concert halls	2(6.3)	4(10.9)		0(0.0)	6(22.2)		3(12.0)	3(6.8)	
Person	By oneself	16(50.0)	22(59.5)	1.081	20(47.6)	18(66.4)	2.450	15(60.0)	23(52.4)	0.714
	Friends	9(28.1)	10(27.0)		14(33.4)	5(18.6)		6(24.0)	13(29.5)	
	Loved ones	7(21.9)	5(13.5)		8(19.0)	4(15.0)		4(16.0)	8(18.1)	
Genre	Classical	3(9.5)	5(13.5)	1.032	6(14.2)	2(7.5)	1.227	7(28.0)	1(2.3)	1.177
	Popular music (Korean/National)	19(59.1)	15(40.5)		21(50.0)	13(47.8)		12(48.0)	22(50.0)	
	Western popular music	3(9.5)	6(16.2)		5(11.9)	4(15.0)		3(12.0)	6(13.6)	
	Religious music	7(21.9)	11(29.8)		10(23.9)	8(29.7)		3(12.0)	15(34.1)	
Mood	Fast and lively	14(43.7)	13(35.1)	3.734	10(23.9)	17(62.8)	8.450*	11(44.0)	16(36.3)	5.620
	Heavy and solemn	4(12.5)	2(5.4)		3(7.1)	3(11.1)		1(4.0)	5(11.4)	
	Calm and stable	10(31.3)	12(32.5)		17(40.5)	5(18.6)		10(40.0)	12(27.3)	
	Slow and lyrical	4(12.5)	10(27.0)		12(28.5)	2(7.5)		3(12.0)	11(25.0)	
Lyrics	Love	12(37.3)	18(48.7)	3.732	20(47.6)	10(37.0)	1.246	12(48.0)	18(40.9)	0.657
	Courage & hope	14(43.7)	13(35.1)		16(38.1)	11(40.5)		9(36.0)	18(40.9)	
	Memory & nostalgia	3(9.5)	6(16.2)		5(11.9)	4(15.0)		3(12.0)	6(13.6)	
	Social issues	3(9.5)	0(0.0)		1(2.4)	2(7.5)		1(4.0)	2(4.5)	

Notes.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χ^2 statistics were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Fisher's exact test. The values in the table were n(%).

* $p < .05$.

<Table 6> Purpose of Music Use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N=69)

Purpose	Gender		Z	Length of stay in Korea		Z	Music education experience		Z
	Male	Female		< 2 yrs	> 2 yrs		Yes	No	
	(n=32)	(n=37)		(n=42)	(n=27)		(n=25)	(n=44)	
Joy	4.08 ± 0.48	4.18 ± 0.51	-1.097	4.10 ± 0.53	4.16 ± 0.50	-0.765	4.17 ± 0.35	4.10 ± 0.59	0.906
Comfort	4.33 ± 0.35	4.32 ± 0.47	0.156	4.31 ± 0.40	4.36 ± 0.41	-0.691	4.30 ± 0.37	4.36 ± 0.29	-0.731
Mood change	4.11 ± 0.46	4.20 ± 0.26	-0.945	4.15 ± 0.35	4.18 ± 0.43	-0.499	4.20 ± 0.29	4.12 ± 0.47	0.815
Achievement	3.19 ± 0.76	3.27 ± 0.62	-1.027	3.24 ± 0.65	3.19 ± 0.80	0.531	3.26 ± 0.76	3.20 ± 0.95	0.763
Belonging	3.55 ± 0.87	3.62 ± 0.84	-0.838	3.75 ± 0.78	3.39 ± 0.83	2.805*	3.61 ± 0.29	3.56 ± 0.78	0.627

Notes. The results of Wilcoxon Rank Sum Test. The values in the table were mean ± standard deviation.

* $p < .05$.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B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개인 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은 혼자 기숙사에서 음악 감상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상실을 겪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Na, 2006)이 반영된 결과로, 일반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서도 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관계망의 제한 혹은 축소(Cho & Lee, 2010; Lim & Han, 2009)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등 대학 생활 적응의 걸림돌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문화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Baik, 201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Lee(2007)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음악감상이 대학생활의 적응 및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소외감, 고독감, 상실감 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음악 활동을 개별 형태보다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음악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대중가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결과(North et al., 2004; Park & Hwang, 2011)와 일치한다. 또한 선호하는 음악의 가사 주제는 사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음악 자체가 사랑을 주제로 한 가사가 많고, 연구의 조사 대상 연령층이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의 음악 활용에 대한 선호 즉, 음악적 취향은 또래집단 혹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음악의 친숙도와 반복청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innäs, 1989). 또한 이들은 한국의 대중음악보다 본국의 대중음악을 많이 감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미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혹은 사회적 요인이 현재의 음악 활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eo, 2005)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 중심의 음악감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감상 동아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적인 음악감상을 넘어서 각 나라 음악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목적은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성취감, 소속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을 통해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고, 기분전환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이 기분전환을 돕고 우울, 불안, 긴장을 해소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데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Bradt & Dileo, 2009; Knight & Rickard, 2001; Pelletier, 2004)와도 일치한다. 즉, 음악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친근하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음악의 활용 목적에서 성취감 및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혼자 감상 위주의 제한된 음악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적응(adaptation)을 돕기 위한 음악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하고 편안한 음악감상 환경을 기반으로, 음악적 긴장감과 해결을 순환적으로 구조화하여 대처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감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감상뿐만 아니라 악기연주나 노래하기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음악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음악과제의 복잡성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 변인(성별, 한국거주기간, 음악경험유무)에 따른 음악 활용에서 성별과 음악경험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거주기간은 선호 음악분위기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은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반면, 2년 이상인 집단은 빠르고 경쾌한 음악에 대한 선호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이들의 선호 음악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음악과 정서와의 관계에서 음악의 요소적 특성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는 빠른 템포와 규칙적인 리듬패턴에서 긍정적이며 활성화된 에너지를, 느리고 순차적인 선율은 부정적이며 낮은 각성을 유발한다(Chong, Jeong, & Kim, 2013). 이처럼 음악요소의 특성을 통해 유도된 정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음악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감상 동기가 촉진되면서 높은 선호를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학생의 거주기간과 관련한 최근 연구에서, 미국 내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유학생을 대상으로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Sümer, Poyrazli, & Grahame, 2008; Wang & Mallinckrodt, 2006).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유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 Han, 2009). 따라서 상대적으로 심리적 위축, 우울, 불안 등을 과증하게 겪을 수 있는 유학 초기에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에서 한국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이 2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소속감을 위한 음악 활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Baik, 2011; Lee, 2014)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소속감 항목은 대학생활에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적응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Baker & Siryk, 1984), 집단 내에 긴밀한 유대와 상호 지지의 경험 정도인 소속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유학생생활 적응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이 2년 이상인 집단보다 음악을 통해 소속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음악이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과 음악의 활용 목적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을 구상할 때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지, 개인 변인에 따른 음악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혼자 기숙사에서 감상 위주의 수용적 음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을 돕는 음악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국의 음악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각 나라의 음악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기간이 음악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기간에 따른 음악에 대한 접근방식에 차이를 고려하여,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맞춰 조기에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특성의 분포도가 고르지 않고, 표본이 적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표본수를 늘려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외국인 학생들의 음악 활용뿐만 아니라 음악인식과 음악선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개발에 폭넓고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ik, J. S. (2011). Variable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배경,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3), 119-131.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radt, J., & Dileo, C. (2009). Music for stress and anxiety reduction in coronary heart disease patients. *Cochrane Database Systematic Reviews*, 2, CD006577.
- Cho, Y. W., & Lee, S. S. (2010).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75-99.
- Choi, S. M. (199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llege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of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n, China-korean, Chines*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대학생을 중심으로)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ng, H. J., Jeong, E., & Kim, S. J. (2013). Listeners' perception of intended emotions in music.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9(4), 78-85.
- Chung, H. C. (2009). Music psychotherapy program on acculturative stress for North Korean child defectors(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심리치료 적용 연구).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Education*, 6(1), 1-31.
- Finnäs, L. (1989). How can musical preferences be modified? A research review.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02, 1-58.
- Han, Y. K. (2008).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universities: With a focus on Mongol students*(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한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Hudson, R. (2006). Regions and place: Music, identity and pl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5), 626-634.
- Hwang, I. S., Kim, B., & Ahn, S. A. (2008). Economic ripple effect of Korean wave (Hallyu): Impacts of the satisfaction of Korean popular music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on the purchase intention for Korean culture products(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 대학

- 생들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 문화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8(6), 140-150.
- Knight, W. E., & Rickard, N. S. (2001). Relaxing music prevents stress-induced increases in subjective anxiety, sy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in healthy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Music Therapy*, 38(4), 254-272.
- Kreutz, G., Russ, M. O., Bongard, S., & Lanfermann, H. (2003). Cerebral correlates of music listening: An fMRI-study on the effects of “happy” and “sad” classical music. *Nervenheilkunde*, 22(3), 150-156.
- Lee, C. S. (2012).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Korea(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분석).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2), 121-140.
- Lee, G. O. (2007).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activity types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Korean universities(중국유학생의 여가활동유형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Tourism Research*, 25, 23-41.
- Lee, J. E. (2016). Effect of percussion performance activitie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ego resilience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타악기 연주활동이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oblem solving and student adaption to college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재한 중국 유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Lee, J. H., Jeoung, K. Y., & Yu, H. J. (2007). Effect of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세대간 가족관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5), 407-429.
- Lee, J. M. (200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the adaptation in Korea*(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실태 연구)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M. (2014). Effects attitude of cross-culture and personal traits on acculturation for foreigner students living in Korea(외국인 유학생의 이문화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 특성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4), 368-378.
- Lim, S. J., & Han, G. S. (2009).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분석).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413-427.
- Lysgaard, S. (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 45-51.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3/000334/033411eo.pdf>
- Ministry of Justice (2017). *Statistics of foreign students*(체류외국인통계) (Report No. 111004). Retrieved from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11004&inputYear=2016>
- Misenhelter, D., & Price, H. E. (2001). An examination of music and nonmusic majors' response to selected excerpts from Stravinsky's *Le Sacre du printemp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4), 323-329.
- Moon, H. J. (2014). The relationship of the Korean wave, the Korean wave contents, the product preference and country image: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류 인식과 한류콘텐츠 만족도 및 제품 선호도, 국가 호감도 관계 연구). *Advertising Research*, 100(3), 142-171.
- Na, I.-S.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Korean NPO Review*, 5(2), 159-197.
- North, A. C., Hargreaves, D. J., & Hargreaves, J. J. (2004). Uses of music in everyday life.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2(1), 41-77.
- Oh, S.-H., Kim E.-Y., Jeong, J.-A., Jun, J.-M., & Nam, M. (2016). The effect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decreasing the level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anxiety of social interaction on married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노래중심 음악치료활동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8(1), 61-85.
- Park, K.-S., & Moon, N. M. (2011). Impact of sentimental and contextual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music recommender systems(음악추천시스템의 수용성에 개인감정과 상황이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5), 104-116.
- Park, M. H. (2010).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ed migrant women*(집단음악치료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Park, S. Y., & Hwang, E. Y. (2011). A study on the music preference on individual factor of general public: Musical factor and external musical factor(대중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 음악선호도 조사연구: 음악 요인과 음악 외 요인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1-15.
- Pelletier, C. L. (2004). The effect of music on decreasing arousal due to str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Music Therapy*, 41(3), 192-214.
- Rentfrow P. J., & Gosling, S. D. (2003). The do re mi's of everyday life: The structure and personality correlates of music pre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236-1256.
- Ro, J. H., Song, K. W., & Shin, H. S. (2003). A study on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their improvements of schools(단위학교의 행정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교육개혁 업무를 중심으로).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1(1), 193-220.
- Seo, S. J., & Keum, M. J. (2012).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type and adaptation to college with respect to their characteristics(제한 일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3(1), 35-47.
- Seo, S. M. (2005). A study on the behavior of adolescence's music listening(청소년의 음악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Korea Music Therapy Education Association*, 2(2), 1-14.
- Shin, Y.-S., & Cho, S. H. (2012). Development of model for video media music therapy program using body expression-based on color, harmony and dynamics(신체표현을 활용한 영상미디어 음악치료프로그램모형 개발-색깔과 화음 및 다이내믹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8), 429-437.
- Sun, L. (2009). *A study on cultural adaptation statu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제한 중국인 유학생 한국문화 적응 실태 조사 연구)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Sümer, S., Poyrazli, S., & Grahame, K. (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6(4), 429-437.
- Yang, J. H., & Park, H. Y. (2016). Uses of music by people with adventitious visual impairments(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3(1), 41-60.
- Yoo, J. A. (2016). *The effects of percussion based music therapy on anxiety and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mong Mongolian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한 몽골 중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Yoo, M.-I. (2013). A study on the interests of music, emotional changes through music &

- musical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대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 음악을 통한 정서 변화 및 음악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A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6(1), 139-150.
- Yook, C. Y., Kim, S. I., & Seo, Y. H. (2009). The influence of sport participation on cultural adjustment and stress i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문화적응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 Sport Research*, 20(6), 23-36.
- Yoon, S. Y. (2016). The effects of song psycho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 Yu, J. W. (2013). Accultur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개인적 · 사회적 교류, 경계인식,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1(34), 245-260.
- Wang, C.-C. D., & Mallinckrodt, B. (2006). Acculturation,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nese/Taiwa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22-433.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 Zhang, Y. (2005). A study on the Korean mastery level and acculturative stress of the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숙달 수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nam.

- 게재신청일: 2018. 04. 13.
- 수정투고일: 2018. 05. 05.
- 게재확정일: 2018. 05. 18.

Use of Music by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Shin, Wan Ju*, Park, Hy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 of music by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foreign college student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25 items regarding use of music, the purpose of music use, and demographic information. A total of 1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81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and the remaining 6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preferred listening to music over playing instruments or singing and mostly listened to popular music in their dormitory alone. They mostly listened to popular songs with love related themes and preferred music from their own country over Korean music. Second, in terms of the purpose behind music use, comfort was the reason report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mood change, enjoyment, sense of belonging, and sense of achievement.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use of music depending on individual factors (e.g., gender,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length of previous music education), bu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using music for the purpose of mood change and sense of belonging based on respondents'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usical programs for cultural adaptation and psycho-emotional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Key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use of music, purpose behind music use, individual factors, survey

*First author: Music Therapist, Nasaham Rehabilitation Center for Developmental Disorders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Therapy, Kosin University
(legendphy@kosin.ac.kr)